

<아시아박물관 기행>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Osaka, Japan

박장식\*\*

Jang Sik PARK

일본 오사카 북쪽에 위치한 스이타(吹田)시에는 1970년 만국박람회  
회가 개최되었던 자리에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만국박람회기념  
공원은 줄여서 만박공원(萬博公園)이라 하며, 박람회 당시에 상징물  
로 세워졌던 ‘태양의 탑’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각종 문화 및 위락 시  
설이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넓은 녹지 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 주말  
이면 많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찾아와 자연을 만끽하는 곳으로도  
이름나있다. 특히, 일본의 거의 모든 정원 양식을 볼 수 있는 일본정원  
(日本庭園)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관광코스로도 유명하  
다.

바로 이곳에 문화시설로 오사카일본민예관(大阪日本民藝館)과 함  
께 국립민족학박물관(國立民族學博物館,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http://www.minpaku.ac.jp>)이 자리 잡고 있다. 1977년(1974년에 박물관  
설립) 일반에게 공개된 민박(民博, minpaku. 일본에서는 민박이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며, 이 글에서도 민박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은 우

\* 이 글은 지난 2010년 11월 16일 국립민족학박물관 부관장인 타무라 카쓰미 교수가  
부산외대 동남아시아지역 초청강연회(주제: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역할과 위상)  
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본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교수. [jspark@pufs.ac.kr](mailto:jspark@pufs.ac.kr)

리에게 다소 생소한 민족학과 문화인류학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 성과에 기초하여 민족 자료의 수집과 공개 등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세계 모든 민족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족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흔히들 이 박물관을 우리의 민속박물관과 비유하기도 하지만, 민박의 설립 목적에서 나타나듯이 구조, 규모 및 기능면에서 매우 다르다.



<그림 1>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입구. 왼쪽 둥근 지붕이 있는 건물이 강연회와 세미나가 개최되는 공개홀이다. 출처: 국립민족학박물관.

우선, 구조를 보면 건물의 겉모양<그림 1>이 짙은 무채색을 띠고 있어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모두 4층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주로 전시물을 보관하는 지하의 공간도 매우 넓다. 4층 모두 전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시공간은 16,830㎡의 2층에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1층을 제외하고, 아래 <그림 2>에서 보이는 중앙의 정사각형 부분인 3, 4층은 일부 관리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연구 공간이다. 이처럼 상당한 공간이 연구 부문에 할당되어 있다는 점은 민박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림 2>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경. 출처: 국립민족학박물관

민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그 기능적 측면을 얘기해야 할 것이다. 민박이 가진 중요한 기능은 연구소, 공동이용, 대학원 교육, 정보센터, 전시공개, 사회환원 등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민박은 연구소 기능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박물관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인류학의 한 갈래로 민족의 근원, 분포, 언어, 종교, 기술 및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민족학과 인간의 문화적 요소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을 중심으로 인접 학문분야(언어학, 역사학, 종교학, 지리학, 생태학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일본의 문화인류학과 민족학 연구의 중심센터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과 동시에, 연구 성과를 출판 및 다양한 형태로 공개하고, 관련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연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민박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을 수 있다. 보통 박물관에는 큐레이터(curator, 학예사)라 불리는 전시물 관리기능의 연구자가 존재하지만, 이곳에는 문화인류학, 민족학, 언어학, 민족기술, 민족예술 등을 전공으로 하는 약 60명의 연구교수가 있고, 이들의 연구 성과에 따라 전시물의 수집 및 공개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민박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 및 세계 각국에서 초빙된 객원교수들이 매년 20~30명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민박은 국립 시설이어서 일본 대학 간의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연구자 커뮤니티에 의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열린 연구소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민박에서 수집되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이러한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일정한 기준의 이용자의 신청에 공개하고 있다. 일반적인 박물관의 수집·보관 자료나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매우 획기적인 발상인 것이다.

민박의 연구 기능은 나아가 후속 세대의 연구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까지 겸하게 되었다. 일반 대학과는 달리 고도의 대학원 교육만을 담당하기 위해 ‘종합연구대학원대학’(The Graduate University for Advanced Studies)을 1988년에 설치하고, 문화과학연구과에 박사과정인 지역문화학 및 비교문화학 전공을 두고 있다. 게다가 대학공동이용기관이라는 특성을 살려 일본 국내의 각 대학원 교육과 협력하여 민박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분야에 다른 지역 대학 소속의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이곳에서 몇 년 간에 걸친 인류학 세미나에 참가하였고, 일반 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는 티벳어 강좌를 민박의 교수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인류학에 대한 학문적 입문은 타 대학 소속 학생을 흔쾌히 수용하는 열린 교육체계를 지향하는 민박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계 민족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표본 자료, 민족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영상 및 음향 자료, 문헌도서 등 제반 자료를 수집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나 정보의 정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내외의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민박은 2004년 문화자원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Cultural Resources)를 설치하여 조사 및 자료의 수집에서 자료 정리 및 관리, DB구축을 포함한 정보화, 공동이용 및 일반공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JICA(국제협력기구) 집단연수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박물관학 집중코스(Intensive Course on Museology)를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수집, 정리, 연구, 전시, 보존에 관한 실천적 기술의 연수를 실시하여, 박물관을 통하여 각국의 문화 진흥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같은 해에 문화인류학과 민족학 및 그 주변 제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민박 연구활동의 전략을 기획하기 위해 연구전략센터(Center for Research Development)를 설치하였다. 이곳에서는 민박의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입안, 운영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연구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센터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개인 연구자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박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연구 주제를 향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로서는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림 3> 2층 전시공간의 배치도. 아시아에 관한 전시관이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민박이 표방하는 가장 큰 기능은 박물관 기능으로서의 전시공개 부문이다. 연구 활동의 성과를 전시를 통해 공개한다는 사실은 다른 박물관과 차이를 보인다. 연구교수들은 전시에 관한 기획 및 실행

에 있어서 첫 단계부터 참가하는 것으로 연구와 전시의 긴밀한 유대를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상설전시는 세계의 모든 민족의 문화와 사회를 지역별로 구분한 지역전시와 음악, 언어 등 인류문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한 통문화(通文化, cross-culture)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전시는 위의 <그림 3>의 2층 전시관 배치도를 참고하면, 동아시아(중국, 한반도, 아나톨리아, 일본), 중앙·북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모든 대륙을 기본적으로 포섭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이 매우 상세하게 구분되어 강조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 동향을 신속하게 전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시관 내에서 기획전시도 실시하고 있다. 특별전시와 기획전시는 민박 소속 연구교수들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연중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을 지닌 다채로운 주제로 개최되고 있어 민박이 자랑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그림 4> '전통 옷감의 현재-동남아시아의 일상복에서 보는 실정'이라는 주제로 동남아의 의복 및 옷감에 관한 기획전시의 모습. 전시실의 입구에는 별도로 관람객이 전통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진: 배수경

민박의 전시공개의 특징은 문화 항목별로 전시하여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이른바 ‘구조전시’의 수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정한 개별문화의 구현을 떠나서 여러 문화적 요소를 조합하여 보여줌으로써 지역문화의 전체적 이미지를 지향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전시물의 선택에 있어서도 플라스틱 도입 이전의 시간축을 설정하여 민족지적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전시 의도는 지역문화가 지니는 독자적인 가치를 강조하여 결국 문화상대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관람객의 시선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의 대상물에 대하여 영상 및 음향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자료를 도입하여 관람의 효율성을 더하고 있다.



<그림 5> 동남아시아 전시관에서 만난 필리핀의 지프니. 현대 동남아의 실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시물이다. 사진: 배수경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설전시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우선, 전통적인 생활용구가 주로 수집되어 전시되는 경향이 많아서 전시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정적인 이미지만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현대적인 기물의 수집과 전시를 통하여 그러한 편향적인 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게다가 전시 대상물을 단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수집한 탓에 각 전시물의 배경 정보가 누락된 점은 옥에 티로 여겨진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21세기에 들어와 범지구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글로벌’ 현상, 즉 사람과 물건과 정보의 교류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양산하기 시작한 동시대적 현상을 보여줄 적절한 전시기획이 결여되어 있는 점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전시 대상물의 시간축을 과거로 고정하지 말고 현대사회로 옮겨오는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동남아시아 전시실의 경우, 9개의 테마(벼농사문화, 바다의 생활, 산지의 생업, 생활용구, 신앙의 세계, 의복과 장신구, 와양의 광장, 불교의 공간, 도시의 풍경)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동남아의 국가별 전시를 지양하고 동남아의 문화의 특징인 외부문명의 영향과 내부세계의 기층문화를 표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농경, 주거양식, 의복 등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전시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동남아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전시물도 눈에 띈다. 하지만, 특정한 종교(상좌불교)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 다양한 종교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아의 특색을 한 눈에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동남아 전시실의 ‘와양의 광장’에는 인도네시아의 인형극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를 구비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그림자극인 ‘와양꾸릿’(wayang kulit)의 실제 공연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도구가 전시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인도네시아의 그림자극인 와양꾸릿은 청중이 앉아 있는 스크린의 뒤쪽에서 다랑(dalang)이라 부르는 인형극 연출자가 가죽(꾸릿)으로 만든 납작 인형을 불빛에 비추어 스크린에 생기는 그림자로 공연하는 것을 말한다. 주변에는 와양꾸릿에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인형과 공연에 빠질 수 없는 음악을 연주하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악단 가믈란의 악기도 구비하고 있다. 게다가 실제공연 장면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TV 화면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전시물의 입체적 전시는 생소한 대상에 대한 관람객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그림 6> 와양꾸릿의 공연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가 갖추어져 있다. 사진: 배수경

전시 외에도 최종적인 연구성과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학술강연회, 민박세미나, 민박위크엔드살롱, 연구공연, 민박영화회 등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연구공연이란 세계 민족의 음악이나 예능 등의 공연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부분 특별 전시나 기획전시와 함께 현지의 음악가, 예술가를 초빙하여 특별공연을 개최한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연간 회원제인 ‘國立民族學博物館友の會’[국립민족학박물관 친구의 모임]을 설립하여 일반 대중들의 민박 활동의 지원과 박물관 이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박의 1층 출입구 쪽에는 ‘뮤지엄샵’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박의 전시물과 관련된 각종 기념품이나 도서, 음반 등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기념품의 종류도 다양하여 방문기념으로 선물을 준비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연구와 전시의 결과물을 출판한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민박의 정기적인 출판물은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別冊』, 『國立民族學博物館調查報告』,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叢書』,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年報』 및 영문 저널인 『Senri Ethnological Studies』가 있고,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관하여 학술적 특색이나 기대되는 성과 등을 담은 『民博通信』이 일 년에 네 차례 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민박 소속 연구교수들의 개인적 연구 성과를 실은 많은 단행본

이 출판되어 있다.

이제 민박이 개관한지 30여년이 지났다. 세계 민족의 문화를 알리는 박물관의 기능을 강조할 때,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2006년 『國立民族學博物館三十年史』를 간행하였다. 이 책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 일방적인 민족지적 전시 방향에 대한 해당 민족이나 문화권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타자의 전시에 대한 시선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현대에서는 관람객이 입수 가능한 정보량이 엄청나다라는 점에서 박물관에 대한 요구가 고도화되고 다양화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타자의 연구와 그 결과로 수행되는 전시라는 문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시선의 문제는 전시자, 피전시자, 관람자 삼자간의 상호 대화와 계발의 장(포럼)을 마련하여 민박의 실현 목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관람객 수준의 고도화는 현재 민박이 실현하고 있는 상설전시 외에 특별/기획 전시로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